

선교사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 황종연 목사 / 2002. 3. 8 -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느끼지만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은 줄어들고 심지어는 원 위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의 결정과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품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능력, 성숙한 신앙, 언어능력과 가르침의 은사 등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고, 점수를 매겨보고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은 선교사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주변의 누군가가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비난이라도 하면 그것은 결정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도 자격이 있어 선발되는 것도 아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경우였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성경속의 모든 인물은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단지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6:7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묻혀있는 시간을 헤아려 보십시오.

열둘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곧바로 보낼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은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함께 먹고 잠자고 생활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겸손 그리고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삶으로 체험하며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 각자에게 적당한 분량의 책임을 주시고 두 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능력까지 주셔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초대 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1-6절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도 형태도 없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진흙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손에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쓰여 질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모순과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인간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그 손안에서 기꺼이 준비되기 위하여 남기를 결정하시는 분 그리고 그릇이 된 후에도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만드신 자의 의도하신 자리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말기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